

# 시민참여형 환경친화도시 조성 박차

### 익산시 10개 분야 중점 추진과제 선정,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

익산시는 올해 초미세먼지를 20㎍/㎡까지 저감시키는 등 시민참여형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종합대책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우선 외부기관 2개소 및 시청 21개과와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참여·소통부분, △건강보호부분,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비산먼지부분, △생물성연소 부분, △전구물질저감부분, △이동오염원 부분, △비도량외오염원 부분, △산단부분, △500만㎡ 나무심기 등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조성한다.

특히 시민참여·소통 부분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발굴, 시민원탁회의 추진, 미세먼지 과수꾼 교육, 미세먼지 환경교육 등을 실시해 시민과 소통하고 다 같이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로 거듭난다.

또한 4월 3일부터는 익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모현동 소재의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가 준공되면서 미세먼지 유입경로 및 특성분석이 이뤄짐에 따라 보다 정밀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농촌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ICT기반 축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특정경유차 관리강화 등 다각적인 사책도 추진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신규시책을 발굴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참여, 논밭두렁 불법소각 금지, 시민참여 나무심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다각화 추진

### 올해부터 2년간 장비 5종 구축·기업체 시금형 개발지원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시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체부품 산업을 전환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2년간 국비 7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돼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 5종 구축과 기업체의 시금형(제품) 개발지원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확대 등으로 사업의 다각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 등 인력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지난 2015년 1월에 도입했으며, 군산시 관내 창원금속공업(주)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에 국산차로는 최초로 현대 싼타페TM 모델의 전방 좌·우 핸더(국산차 외장부품 인증품 1호, 2호)와 현대 그랜저IG 모델의 전방 좌·우 핸더(국산차 외장부품 인증품 3호, 4호)를 개발하여 국산차 인증부품 제품인증을 받아 출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예산으로 사출성형기 구축과 20개 이상기

업의 인증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며, 이로써 군산시를 중심으로한 전라북도도는 국산 자동차 대체인증품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라북도 추경예산을 통해 12월에 창원금속공업(주)가 포터 2 범퍼(국산차 외장부품 인증품 6호)로 인증부품 제품인증을 받았고, 또다른 3개 업체가 인증 신청 중에 있으며, 군산시 추경예산을 통해서 4개 업체가 인증품 기술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현재 26개사로 구성된 글로벌 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정기총회를 실시했고, 그 자리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20년도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기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왕궁특수지역 악취 저감 강화

###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감면으로 축산농가 설득, 매입 가속도

익산시가 왕궁특수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현업축사 매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익산천 수질 개선 활동도 강화한다.

익산시는 3일 올해 왕궁 현업축사 매입 목표량(4만1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에 관계부서와 함께 현업축사 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축산농가가 현업축사 매입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현업축사를 매각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60% 이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수요를 감면해 주고 무

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의 현업축사 매각을 적극 유도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신고기준 9,000원/톤 → 1만2,000원/톤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왕궁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해 새만금 수질 개선은 물론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여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꼬꼬마양배추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확대 육성할 방침이다.

# 군산 꼬꼬마양배추 수출 전략품목 육성

### 재배면적 2배 늘리고 출하물량 확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 먹거리 케이푸드(미래에 클 농식품)에 선정되어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택된 인기몰이를 했던 '꼬꼬마양배추'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확대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지난해 16ha에 410여톤을 생산해 대만과 일본 수출에 이어 롯데마트 등 국내 소비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했으나 연중 출하물량 부족으로 시장진입의 걸림돌을 겪었다.

이에 군산시는 금년도 국내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리고,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시설재배 농가의 봄·가을 2기작 재배 방식을 조기재배를 통해 3기작 재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꼬꼬마양배추 연중 재배작형 개발에 착수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당초 3월말에 재배를 시작해 5월말에 첫 수확을 했던 기존 재배방식을 개선해서 금년에는 30일정도 앞당겨진 지난달 25일부터 시설하우스에 꼬꼬마양배추 모종 정식에 들어갔고, 두달 뒤 4월말에 첫 출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하절기 7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하여 6월과 7월에 정식하는 2기작형과 동절기인 1월에서 3월까지 출하를 위하여 10월과 11월에 정식하는 3기작 재배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작년 일본과 대만에 140톤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이미 대만과 264톤 수출계약이 이루어졌고, 국내 대형마트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며 "연간 700톤 생산 목표로 일본과도 수출계약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청년센터 운영사업' 공모 군산시 '청년뜰' 선정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뜰'이 최종 선정돼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뜰'은 지난해 2019년 9월 개소 이후 4개월간 22개 취창업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했으며, 1,486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군산시 청년뜰을 이용해 전북권을 대표하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 입지를 다졌다.

이번 공모 선정된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국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75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청년들의 진로지도와 취업 프로그램,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뜰'에서는 구직 스트레스 심리관리 프로그램인 청년희망상담소, 취업스터디동아리 지원, 청년도전기 등 취업프로그램, 투자유치 포칭, 관광상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창업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시정발전 논의

익산시가 시의회 의정단과 주요 현안 사업과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3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조규태 익산시의회 의장, 유희숙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디어로움 발행 및 운영현황, KTX익산역 주차환경 개선, 민간공영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익산=장영원 기자

### 김규현 익산국토청장,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동참

김규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최근 시작된 화훼 농가 돕기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청장은 임성재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권창호 LH 전북본부 본부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작은 꽃다발 하나지만 지역의 화훼농가들이 희망을 가지는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당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